

전주매일

금연상담전화 | 1833-9030
전주매일 1층 사무실 063-859-2400 ~ 2410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천변 2길 6번지

2018년 3월 19일 월요일 (음 2월 3일) 제2010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288-9700

덕진공원 연화교 재가설 본격화

전주시, 시설 노후화로 안전사고 위험 높아 이달 중 철차 완료... 내년 말까지 사업 추진

전주시가 시설 노후화로 안전사고 위험이 높은 덕진공원 연화교를 철거하고 재가설하는 공사에 돌입한다. 시는 오는 4월부터 덕진연못 내 연화교를 철거하고 같은 자리에 교량을 다시 설치하는 덕진공원 연화교 재가설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재가설되는 연화교는 덕진공원을 상징하는 연꽃문양을 접목한 디자인으로 전주시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설치될 예정이다.

이달 중 실시계획을 완료한 후 다음 달부터 오는 2019년 말까지 재가설 공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연화교는 덕진연못을 가로지르는 교량(길이260m, 폭1.2m, 높이16.0m)으로 수많은 시민들과 관광객들이 만개한 연꽃과 연잎 사이를 걸으며 연꽃 체험 등 경관의 요소들을 다른 눈높이로 감상할 수 있어 사랑을 받아왔다. 하지만 개설된 지 38년이 경과하면서 시설이 노후화돼 시민들에게 아름다운 경관을 제공하지 못하고 안전진단 결과 'D' 등급으로 판명돼 철거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에 시는 관련 전문가와 시민단체

등과 함께 꾸준히 논의해온 결과 기존 연화교를 철거하는 대신 시민들이 추억을 이어갈 수 있도록 교량을 재가설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동시에 연화교 재가설 사업과 함께 덕진공원 전라북도 대표관광지 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천년카페 정자(3동) 신축 △삼태극 은하수길 조성 △연못 주변에 야간 경관 조명 사업 등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연화교 재가설사업과 삼태극 은하수길 조성, 야관경관 조명사업 등이 모두 완료되면 시민들이 덕진공원을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것은 물론 한옥마을 관광객의 발길도 덕진공원까지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전주시 생태도시국 관계자는 "덕진공원의 역사성과 대표성, 정체성 등을 대변할 수 있는 관광자원으로 전주시 덕진공원을 전 국민이 찾는 대표 생태문화공원으로 명소화하겠다"면서 "연화교가 재가설되면 한옥마을을 찾는 관광객들의 발길이 자연스럽게 덕진공원으로 이어져 명실공히 전라북도의 대표관광지로 자리잡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채규남 기자



새만금특별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돼 새만금개발공사 설립 및 새만금개발청 전복이전 등이 급진전되는 가운데 지난 16일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새만금을 방문했다. 사진은 김현미 장관이 안전모를 쓰며 즐거워하고 있는 모습.

“새만금개발공사 9월 말 출범 · 개발청도 연내 이전”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6일 “새만금개발공사가 9월 말 새만금 지역에서 출범하며, 새만금개발청도 연내 이전에 현장에서 사업을 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새만금 현장을 찾아 송하진 전북도지사, 입주기업 및 투자에 관한 특별법 이 국회를 통과 공사 사장 등 관계자와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말했다. 이 자리에서 새만금개발공사 설립 계획과 비전, 투자계획을 공유하고 새만금 지역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김 장관은 “공사 설립으로 공공이 주도적으로 선도사업을 조속히 추진하게 된다”며 “땅이 매립되면 민간

김현미 국토부 장관, 새만금 현장서 송 지사와 발전방안 논의 고창 강호항공고에서 항공정비분야 일자리 창출 추진 설명

투자를 앞당길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달 28일 새만금개발공사 설립을 골자로 한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공사는 매립사업이 진척되지 않은 국제협력용지(52km), 관광레저용지(36.8km), 배후도시용지(10km)를 단계적으로 매립해 조성하는 역할을 맡는다.

김 장관은 “앞으로 재생에너지, 스마트팜 등 정부가 중점 추진 중인 정책에 맞게 부대사업도 적극 추진

하겠다”며 “신규 투자와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기업들이 적극 참여해달라”고 기업 대표들에게 당부했다.

이어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북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정책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새만금개발공사 신규직원 채용 시 혁신도시 이전기관 수준으로 전북지역 인재가 선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세계캠버리대회 이전에 주요 사회적

반시설이 개통될 수 있도록 투자계획을 앞당기고, 새만금사업을 통한 수익을 지역주민과 공유할 수 있는 사업모형을 적극 발굴하는 등 지역에 대한 지원을 약속했다.

이어, 김 장관은 새만금 현장 방문을 마치고 항공정비인력 양성정책 추진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고창에 위치한 강호항공고등학교를 방문했다.

그는 향후 5년간 항공정비분야에 4000여개의 일자리 창출을 추진 중임을 설명하면서 “정부는 학생 여러분이 취업을 걱정하는 일이 없도록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데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MB 구속청구 이번주 초 결정 예고

중앙지검 수사팀 조사결과 보고

이명박 전 대통령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지난 16일 문무일 검찰총장에게 조사 결과를 보고했다.

문 총장은 수사팀 의견 등을 고려해 조만간 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은 이날 오전 11시에 대검찰청을 방문해 이 전 대통령 조사 결과 등을 문 총장에게 보고했다. 수사팀을 지휘하는 한동훈 중앙지검 3차장 등이 동석했다.

문 지검장은 지난 14일 이 전 대통령을 소환해 조사한 내용과 그동안 진행해온 관련 수사결과 등을 문 총장에게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된 수사팀에서는 이 전 대통령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구속영장 청구가 불가피하다는 방향으로 의

견이 모아진 것으로 알려졌다.

문 총장은 보고 받은 내용과 수사팀 의견을 신중히 검토한 후 검찰 간부들의 의견을 수렴해 이번주 초에 이 전 대통령의 신병 처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관측된다.

문 총장은 이날 오전 출근길에 이 전 대통령의 신병 처리 여부 결정 시점을 묻는 기자들에게 “충실히 살펴보고 결정하겠다”고 답했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 14일 오전 9시 30분에 서울중앙지검에 소환돼 다음날 오전 6시25분에 청사를 나와 출석 21시간만에 귀가했다.

이 전 대통령은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유용 및 민간으로부터 불법자금 수수 등 100억원이 넘는 뇌물 혐의와 다스를 통한 300억원 이상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조사 과정에서 대부분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상민 기자

靑, 판문점 개최 남북 정상회담 ‘당일치기’ 검토

청와대가 4월 말로 예정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제3차 남북 정상회담을 하루 안에 끝내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기사 3면)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지난 16일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남북 정상회담을 하루만 하게 되는가 라는 질문에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회에서 논의를 하고 남북 간 실무접촉을 통해서 확정될 것”이라면서 “현재로서는 그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실무접촉 합의 여부 미지수

말했다.

이러한 전망은 정상회담 준비기간이 촉박하다는 점과 과거 평양에서 열렸던 두 차례 회담과 달리 판문점에서 진행되는 장소적 특징을 종합적으로 감안한 판단으로 해석된다.

회담 장소인 판문점 남북 평화의 집은 1층에 기자회견과 소회의실, 2층에 회담장과 남북회담 대표대기실, 3층에 대회의실과 소회의실로 구성돼 있

다. 회담이 길어질 경우 남북 정상은 숙박을 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춰져 있지 않다.

때문에 정상회담 성사 당시 남북 정상은 차량이나 헬기를 이용해 판문점으로 출퇴근 하는 형식으로 진행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됐다.

다만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회담 과정에서 즉석에서 추가 회담에 합의할 가능성까지는 완전히 배제할 순 없다. 2007년 2차 남북 정상회담 당시 김정일 위원장은 노무현 대통령에게

“하루 더 묵고 가는 게 어떨겠느냐”고 제안한 바 있다.

회담 일정을 늘리기 위해서는 의견과 경호, 숙박을 위한 장소, 세부방식 등 전체적인 회담의 틀을 새로 짜야 한다는 점에서 실제로 남북 간 실무접촉에서 합의가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뉴시스

매일 INDEX
5면 - 전국 시도교육감 협의회
6면 - 공공기관 합동채용 실시

2018 정음벚꽃축제

벚꽃 향기 흠날리는 정음! 벚꽃 눈짓 사랑 빠지다!

4. 6(금) ~ 4. 10(화) 5일간 정음천변 어린이축구장 일원

남진	소원휘	라봄	바다새	완화리
정주	조연비	이지은 (아이즈원)	전용성	김태연

개막식 및 축하공연 4. 6(금) 19:00 / 식전행사 17:30

벚꽃로 걷기 좋은 거리 4. 6(금) ~ 8(일)

벚꽃 야간 경관 조명 3.31(토) ~ 4.15(일)

제22회 정음예술제 4. 6(금) ~ 4.10(화)

제14회 자생화전시회 및 제7회 자생차 페스티벌 4.6(금) ~ 4.10(화)

체험, 간식먹거리 및 농·특산물 판매 4.6(금) ~ 4.10(화)

차량통제안내

정주교 ~ 정동교

4. 6(금) 13:00~23:00

4. 7(토)~8(일) 09:00~23:00